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6월 제256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앙천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두 분 희생이 대한민국 지킨 원동력, 나라 수호하자"

오영안 장군 · 임재엽 상사 추모식 6월 4일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봉행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위치한 호국영웅동산(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에서 동문인 고 오영안 장군 25주기, 고 임재엽 상사(재작년 상사 추서) 11주기 추모식이 임재엽 상사 부모와 강신열 총동문회장과 동문들, 이종업 모교 교장과 교직원,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 정종호 충호안보연합대전충남지부장과 회원들, 임강수 충호안보연합계룡시지부장과 회원들, 모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매년 이 행사를 주최한 607기무부대가 재작년 갑자기 해체됨에 따라 재작년 행사는 학교측이 맡았다가, 지난해부터 총동문회에서 주최하게 됐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교 재학생대표 등 최소한의 참석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전에 호국영웅동산 진입로에서 열 체크 등 방역수칙준수에 철저를 기하였다.

오영안 장군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도중 순국했고, 임재엽 상사는 2010년 북한군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바쳤다. 이에 두 용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지난 1999년 6월 5일 오영안 장군 동상과 2014년 3월 12일 임재엽 상사 동상을 건립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비석의 글씨가 흐려지는 등 보수의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들여 동상비석을 오석으로 말끔히 단장하고, 야간조명시설까지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호국추모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이장수 총동문회 자문위원(전 기무부대장)의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에 대한 약력보고가 있었다.

이장수 자문위원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암흑 속에 빠져있고 고질적 망국병인 국론분열과 자중지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군사대비태세, 생명과 같은 군기강과 위계질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 자문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나라 국민과 국군장병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민족반역자 김일성 일족과 추종자들의 불온한 책동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국운융성과 민족웅비를 위한 자유통일의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축원했다.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추모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두 분의 희생은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있게 해준 역사의 징검다리였다"며 "두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추모사에서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 같은 호국영웅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임재엽 상사 부모님을 생각하니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한 충남기계공고 동문회와 학교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호국의 달을 맞아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6월 4일 오영안 장군 25주기와 임재엽 상사 11주기 추모식이 봉행됐다.

시간을 내어 참석한 동문들이 두 호국영웅 앞에서 호국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임재엽 상사 부모가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상사 진급하면서 오른 연금 모아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 지급”

임재엽 상사 부모 “동문회보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게 역사이고 자랑”

임재엽 상사 부친 임기수씨가 모교 재학생에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해마다 추모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임재엽 상사 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오전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임재엽 상사 부모는 올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임재엽 동문이 상사로 추서되면서 연금이 오르지 않다가 올해 6월에서야 월 인상분 2만여 원을 소급해서 지급해서 받은 것. 이에 임 상사의 부모는 모교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2명(각 50만원씩 100만원)의 학생 추천을 의뢰했고 이날 모교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임재엽 상사 부모는 매년 호국의 달 6월이면 모교 호국영웅동산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하여 동문들과 내빈들에게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임 상사 부모는 그동안 연금을 받은 것을 아끼어 여러 차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모교사랑이 남다르다.

임 상사 부친 임기수씨와 모친 강금옥 여사는 추모식 행사에 앞서 총동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문회보가 잘 발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발전기금 30만원을 기부했다. 임재엽 상사 부모는 ‘동문회보를 통해 모교 소식을 잘 보고 있다’며 “동문회보가 끊기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며 “동문회보는 충남기계공고의 역사이고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모식에 참석한 모교 동문들은 “모교와 총동문회에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며 “임 상사의 순국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학생 부모 코로나 확진, 추모식 행사 열지 못할 뻔 했다”

〈추모식 이모저모〉 전날 비상 걸려, 다행히 학생 검사결과 음성 나와

황원채 대전지방보훈청장이 임 상사 부모와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경기북부동문회 기차표 취소

●…휴전선과 마주한 가장 최전방에 위치한 경기북부동문회(회장 김용진. 11회)는 동문 중에 유난히 군인 출신들이 많아 6월 호국의 달이면 생각이 남다르다.

대기업을 운영하느라고 바쁜 김용진 회장과 임동현 총무(21회)가 시간을 내어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6월 4일자 대전행 KTX기차표도 예매해놓았다. 그런데 3일 저녁 총동문회로부터 “모교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행사가 취소될지도 모르겠다”고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 기차표를 취소했다.

임동현 총무는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북부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행사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조화만큼은 꼭 호국영웅동산에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행히 학생부모가 코로나에 확진된 후 검사에서 모교 학생이 음성으로 나와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경기북부동문회에서 조화를 보내 두 영웅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충호안보연합 각 지부에서도 조화를 보내왔다.

임 상사 부모와 반갑게 해후

●…이날 행사에 앞서 철저한 방역과 체온 체크를 받고 참석한 내빈들은 거리를 둔 의자에 앉아 방역 수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대전지방보훈청은 지난해 호국영웅동산 보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청장이 행사에 참석했고, 올해도 신임 황원채 청장이 참석하여 소중한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보훈청에서는 참석한 내빈들에게 세탁용 마스크를 선물했다. 이날 황원채 보훈청장은 임 상사 부모를 만나자 구면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황 청장은 대전현충원에 근무 시절 인연을 맺었다며 두 분의 건강을 기원했다.

“나라 지킨 두분 뜻 계승…든든한 보훈으로 보답”

두 호국영웅에 대해 묵념

충호안보연합 회원들 경례

강신열 총동문회장과 동문들 분향

이종업 교장과 모교 교직원 분향

모교 학부모회 분향

모교 학생 대표 헌화

총동문회 장학금 수여

임재엽 상사 부모와 함께

모교 동문골프팀 올 전국고교동창골프 하반기 16강전 진출

2021키움증권배SBS최강전 구미전자공고에 8번홀에서 2업차 승리

2021 전국고교동창 골프 하반기 16강에 진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6월 28일 32강전 경기 후 추첨으로 하반기 16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골프팀(단장 전종현)이 경북 상주블루원CC에서 6월 28일(월요일) 벌어진 2020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하반기대회 32강전에서 구미전자공고를 2업차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다. 모교팀은 7월 6일(화요일) 지난해 우승팀 김천성의고와 16강전에서 붙는다. 모교팀은 지난해 통합준결승에서 김천성의고에 진 바 있어 설욕이 기대된다.

모교팀은 6월 21일 전국 152개 팀이 출전한 예선에서 전체 2위의 성적으로 32강에 진출했다. 전종현 단장(12회)의 리드 하에 허영준(25회) 주장과 이문휘(27회) 김경훈(31회) 선수는 그동안 주말을 이용해 연습 라운딩을 하면서 본선에 대비하여 팀웍을 다져왔다. 매년 그렇듯이 예선통과가 본선보다 어렵다는 말처럼 치열한 예선경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본선에 진출하였으나 32강전에서 주장 허영준 선수가 SBS전국골프대회에 출전하는 바람에 전종현 단장이 선수로 출전했다.

이날 32강전에서는 선수로 출전한 전종현 단장이 4미터 거리의 퍼트를 성공시키면서 승기를 잡아 8번 홀에서 2업으로 달아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구미전자공고와의 32강전 경기는 1번 홀에서 상대의 실수로 승리하면서 기세를 잡았다. 2번홀을 패하고 3번홀 비김으로 한때 고전했으나 4번홀과 5번홀을 승리하여 다시 리드하다가 6번홀에서 지고 7번홀에서 비긴 후 8번홀에서 이겨 2업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짓고 하반기 16강전에 진출했다.

이날 응원 차 정찬목 모교 간사(12회)와 최동준 21회동문회장(로보엔지니어링 대표)은 골프장에와 현장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동준 동문은 승리한 선수들을 위해 골프장 인근 모서마을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승리를 축하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충기출신 기술인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이룩"

전종현 총동문회고문 사비 내어,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탑' 보수공사

모교에 지난 2014년 10월 18일 복원된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탑'에 대한 보수공사가 6월 12일 13일 이틀간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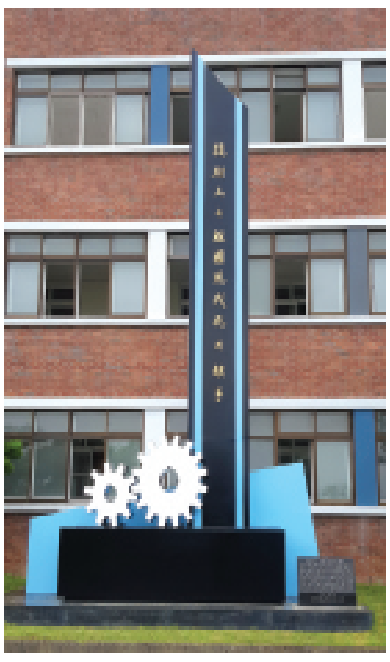
이번 보수공사는 전종현 총동문회고문(모교 기능부후원회장)이 오는 10월에 모교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사비 500만원을 내어 도색 등과 함께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리했다,

기술인 탑은 박정희 대통령 휘호로 1975년에 충남기계공고 교정에 세워졌다가 1997년에 모교 본관 공사를 하면서 철거되었던 것, 동문들은 항상 탑이 철거됨을 안타깝게 여겼었는데, 2014년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전종현 세진크랭크 대표이사가 7천 여 만원의 자비를 들여 자신의 재학시절 세워진 전통의 탑을 복원하기로 하였고, 당시 박준태 충남기계공고교장이 호응하여 복원된 바 있다.

이 탑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이어가는 교육의 산실로 계승발전하자는 뜻에서, 탑신에 삼각축척, 삼각자, T자, 정반, 기어 등을 상징하여, 높이 8m 20cm, 무게 4톤의 거대한 규모로 건립됐다.

2014년 탑 복원 제막식 후 기념촬영

기술인의 탑 유래 비석



보수공사로 탑이 말끔해졌다

공사를 시작하기전 펜스를 쳤다.

전종현 동문은 당초 보수공사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시하려고 했으나, 탑 주위를 지나간 동문들의 제보로 소식이 알려졌다. 한편 학교 담당자는 "그러잖아도 탑 일부분이 색이 바래 고민 중이었다"며 고마워했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충기 출신 선·후배 기술인들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올 10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신경을 써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우수 신입생 선발 모교사랑 장학금 1천만원 전달”

테크노충우회 동문들 올해도 마음모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방문

테크노충우회 정승필 회장(주식회사 에스피이 대표이사.19회)과 홍열표 총무(주식회사 알피엠 대표이사. 23회)는 6월 17일 오전 모교 교장실을 방문하여 장학금 일천만원을 이종업 교장(14회)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종업 교장은 “모교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동문들이 있으니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고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며 감사함을 전했다.

정승필 회장은 “모교에서 동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힘이 되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려 한다”면서 모교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모교는 개교 이래 충청지역에서 명문의 위상에 맞게 지역의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였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우수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신입생 모집에 테크노충우회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우수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을 전달하면 입시 홍보에서 전통과 명문의 모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테크노충우회는 2008년부터 모교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실하며 품행이 단정한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여 전통 있는 명문 학교를 이어가는 초석을 이루고 있다. 테크노충우회는 대전테크노밸리 및 대전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 중에 내실 있고 기술력이 있는 동문들로 차영철 (주)씨애치씨랩 대표이사(11회), 이인우 동서해외수출포장 대표이사(12회), 백두현 (주)두원아이디 대표이사(13회), 도중갑 (주)신도산업 대표이사(13회)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선배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후배들이 밀어주며 끈끈한 의리와 정을 지닌 자랑스러운 동문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테크노충우회 회원들이 모교 교장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충남기계공고 새 역사 창조위해 노심초사 선배님께 경의”

모교 이종업 교장 등 교직원 벤치마킹차 안양공고 견학, 김태갑 교장(12회) 만나

이종업 모교 교장과 김태갑 안양공고 교장, 임동현 동문(왼쪽부터).

“엄마는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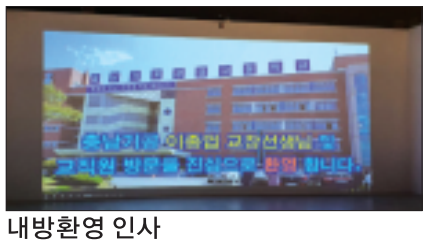
“모교는 동문이 왜 좋아? 그냥. 동문은 왜 모교가 좋아?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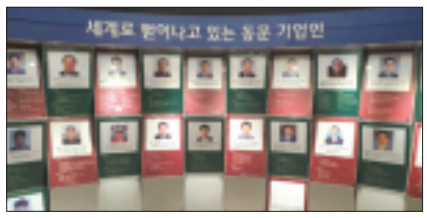
모교에 재직 중인 이종업 교장선생님(14회)이 교무부장, 각과 부장과 함께 안양공고(김태갑교장. 모교 12회)를 벤치마킹 차 둘러보시러 올라오셨다. 이종업 교장선생님은 모교 사상 처음으로 동문 출신 교장에 부임해 오시면서 밤잠을 설치시는 일이 많아졌다. 낙후되면 도태되어 버리는 증강현실의 세상에서 변화에 적응하여 어떻게 해야 역사와 전통의 모교 충남기계공고가 더 새롭고 발전될까를 늘 고민하신다. 마침 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내시고 안양공고 교장으로 부임하시여 안양공고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김태갑 선배 교장의 교육 현장을 배우기 위해 시간을 냈다.

요즘 교육의 대세는 디지털로의 전환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다.

AI시대 메타버스가 큰 화두다. 기존의 선반 밀링 다듬질을 통한 아날로그 생산시대는 전자 통신시대로 넘어갔고, 이제는 IR VR을 지나 XR로 가는 시대다. 남들보다 빠른 대처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선도적으로 나아가려는 이종업 교장 선생님

안양공고 전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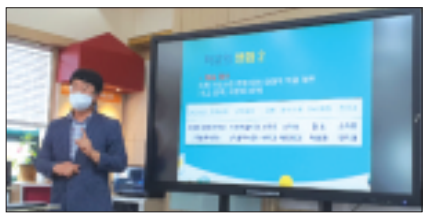

내방환영 인사



안양공고 역사관

스마트팩토리 기계과홍보관

XR융합응용학과


모교 학과개편 구상 설명

께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충기인임을 자랑스럽게 해 주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다. 선생님은 동문들이 무섭다고 하신다. 동문 모교 교장으로써 책임감의 무게 인지도 모른다. 당신도 언젠가 동문으로 남는다. 존경받는 동문으로 기억되고 가장 멋진 이종업 선배님으로 남을 것이다.

올 10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건물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개선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모교 새 역사 창조의 대 장정에 고생하실 모교 재직 선생님들부터 걱정하시는 후덕한 선배님이시다.

안양공고에서 두 분의 훌륭한 선배 교장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뜻있는 친구들, 가까운 선배님께 휴대폰을 들었다. 순전히 모교 선생님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같이 해 보자고.... 문득 “교사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뀌고 학생이 바뀐다”는 문구가 떠오른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린다. 오늘 이 밤 빗소리는 1983년 어느 유월 모교 기숙사 밖의 아카시아 나뭇잎 사이로 내리던 빗소리다. 기숙사 512호실 창가에 흘렀던 내 눈물이다. 이제는 추억으로 소화된 빳다의 통곡이다.

–임동현(경기북부동문회 총무)–

"교사와 학생 위한 휴식공간 등 소프트웨어 시설 구축"

2016년부터 올해까지 약 178억 원 예산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

올 가을 10월 4일 모교에서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열린다. 이를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숙사동과 강당 건물 등을 리모델링 한데 이어 올해는 운동장 인조잔디 재시공, 천장형 냉난방시설(가스 20실, 전기 14실), 전기시설 조명 교체, 5동 및 9동 실습실 추가 수선, 4동 및 12동 실습실(40실) 수선, 교내 도로 아스콘 포장, 12동 16개 교실 석면 제거 등을 벌인다.

모교 5개년 환경개선공사로 모교는 외모상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모교 이종업 교장과 실무자들이 견학 간 안양공고를 벤치마킹하여 모교의 소프트웨어 시설도 획기적으로 보충되기를 기대해본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 목	최근 5개년(2016~2021) 환경개선공사 관련 투입 예산 규모				
내 용	▣ 환경개선공사 관련 투입 예산: 약 178억 ▣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사업내용	금액	비고
	2021	체육시설	운동장(인조잔디) 설계 및 공사	250,000	
		냉난방시설	천장형냉난방(가스 20실, 전기 14실)	348,428	
		전기시설	조명교체(석면 10실, 무석면 24실)	76,718	
		기타시설	5동 및 9동 실습실 추가 수선	2,564,124	
		기타시설	4동 및 12동 실습실 수선(40실)	3,489,344	
		외부환경	아스콘(덧씌우기 5,000㎡, 포장 3,000㎡)	856,400	
		안전제고	12동 석면교체(16실)	185,103	
		소 계		7,770,117	
	2020	교실	교사개축경제성검토용역(3,4,11동)	90,000	
		안전제고	옹벽(300㎡), 배수로(150m), 안전난간(100m) 수선	277,292	
		안전제고	내진성능평가 실시	100,000	
		기타	5동 및 9동 연결복도(3실) 증축 및 부속동(13,18동) 철거(5실)	477,295	
		내부환경	5동 및 9동 화장실 수선(6실)	670,126	
		냉난방시설	5동 및 9동 천장형냉난방(가스 51실 전기 34실 강당 1실)	1,218,213	
		전기시설	조명교체(무석면 85실)	165,750	
		기타시설	5동 및 9동 실습실 수선(40%)	1,798,880	
		소 계		4,797,556	
	2019	내부환경	7동 화장실 수선(5실)	517,811	
		냉난방시설	7동 천장형냉난방(가스 18실, 전기 12실)	361,208	
		기타시설	7동 기숙사 설계비(4.03%) 및 수선비(2,000㎡)	1,528,371	
		안전제고	7동 석면천장교체(22실)	248,114	
		소 계		2,655,504	
	2018	부분수선	급식실 옥상 방수(6실)	42,600	
		급식시설	급식실 현대화(1식), 식당수선(10실)	1,222,226	
		외부환경	진입로 보수(600㎡)	94,833	
		소 계		1,359,659	
	2017	부분수선	4동 옥상방수(10실), 13동 옥상방수(3실), 외부도장(10실)	101,834	
		기타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12,000	
		외부환경	자전거보관대(10조), 블록포장(600㎡)	72,917	
		소 계		186,751	
	2016	냉난방시설	본관동 천장형냉난방(가스 46실)	642,998	
		안전제고	본관동 천장교체(46실)	371,635	
		소 계		1,014,633	
	합 계			17,784,220	
참고	없음.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 남침 야욕 막아야"

대전국민주권시민연대회원들 호국영웅동산 참배

대전국민주권시민연대(회장 홍성주. 총무 안미라)는 호국의 달을 맞아 퇴색되어가는 호국정신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6월 19일 토요일 오후 모교 호국영웅동산 등 대전지역 6.25전적지와 호국성지를 순례했다.

대전국민주권시민연대에는 충남기계공고 배대진(4회) 김대환(12회) 동문 등 다수가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전국민주권시민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둔산동 보라매공원(대전지구전투호국영웅비)와 사정공원(6.25학도병추모비, 애국지사총), 보훈공원(유엔참전기념탑)을 들른 후 오후 4시 모교 호국영웅동산(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 추모비)에 들러 호국영웅들의 순국정신을 기렸다.

회원들은 "스탈린의 세계적화 야욕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에 의한 동족상잔의 6.25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김일성 주의자들인 주사파 운동권을 척결하자"고 주장했다.

배대진 동문은 "우리 모교 출신 중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오영안 장군과 임재엽 상사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국가인 북한은 북한주민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만들어놓고 핵무기를 만들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52-5656

모교 펜싱부 전국펜싱대회 단체전 3위

2학년 4명 출전, 강호 서울체고 등 제압

모교 펜싱부 학생들이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라남도 해남에서 개최된 제50회 회장배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하는 쾌거를 거뒀다.

단체전에서는 2학년으로 구성된 김지찬, 신환규, 최상윤, 이승민이 출전하여, 16강 토너먼트에서 전북체육고를 상대로 45대 33으로 이기고, 8강전에서 서울체육고를 43대 42 한 점차로 어렵게 승리를 따냈다. 8강에서 라이벌인 서울체육고를 상대로 모든 힘을 쓴 이후 4강전에서 경남체육고에게 아쉽게 패배하여 동메달에 그쳤다. 모교 선수들은 그동안 더위와 싸워가며 팀원들끼리 구슬땀을 흘려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정훈 지도교사는 "펜싱부 학생들이 그라운드에서 뿐만 아니라 학급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특기생으로서의 열외 없이 학생으로서 충실히 학급 활동에 임하여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전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펜싱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5월 26일 ~ 6월 27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광	2	김용무	20,000	전	10	서호석	20,000	기	16	윤석광	20,000	기	21	유호문	20,000
상	2	도인선	100,000	광	10	이기성	2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1	정종배	20,000
광	3	서한수	20,000	전	10	조성만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기	21	황희원	20,000
자	3	엄세진	20,000	기	12	황규표	6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금	31	김종현	20,000
전	3	이우정	20,000	기	13	한갑우	2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	홍명표	20,000	기	14	김교신	100,000	기	16	이진구	20,000	단체		14회동문회	2,000,000
전	4	김선억	300,000	기	14	김기영	500,000	전	16	장보환	40,000	故		임재엽상사부모님	
방	4	서종원	100,000	기	14	성현철	20,000	배	17	강영희	50,000				300,000
전	5	김봉식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기	17	송수영	50,000				
전	7	김기홍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18	김정중	20,000				
광	7	이동승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0	박우용	20,000				
전	8	김용범	50,000	전	16	성기일	20,000	기	20	오철안	20,000				
전	8	임헌표	50,000	기	16	성용제	200,000	기	21	문길수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기	21	진춘식	100,000

특별회계 장학금

단체		14회동문회	1,000,000

"하루 단 1초라도 웃었다면 그걸로 됐다. 그래 살아가자"

향기 나는 글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 별을 본다면 그걸로 됐다.

누구나 다 그리 살아간다

산다는 게
웃는 날보다 우울한 날이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부터
인생이 깊어진다.
부디 그대여
한숨 쉬며 주저앉지 마라.
왜 나만 이럴까.
한탄하지 마라.
다 똑같다.
누구나 겪는 것이고
누구나 다 숨기며 살 뿐이다.
이 세상에
시들지 않는 꽃이 있던가.
지지 않는 달이 있던가.
꽃은 시들어도 향기가 남고
달은 져도 다시 또 오른다.
그대여 여기까지 오느라
참 애썼다.
왜 그걸 모르겠는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왜 모르겠는가.
그럼에도 수백, 수천 가지
괴로움이 있더라도
단 하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걸로 됐다.

하루 단 1초라도 웃었다면 그걸로 됐다.
하루에 따뜻한 말 한마디면 그걸로 됐다.
하루에 한 번 별을 본다면 그걸로 됐다.
그래 살아가자.

<좋은 글 중에서>

〈카메라 촛점〉

무더위 속 나무 전지, 모교 교장선생님

6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경 모교 동쪽 후문 방향 담 부근에서 한 사람이 전지가위를 들고 복숭아 나무를 전지하고 있었다.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50미터 전방에서 시야에 들어왔다. 차 안에서 카메라로 댕겨서 전지하는 모습을 찍었다. 무더위 속에서 전지하는 사람은 모교 이종업 교장이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여러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형규 소방, 가스, 주방 판매 서비스 충청지부
대표 김응범(기계과 30회) ☎ 010-3968-3880
※ 취급 품목 : 가스(가스감지기, 가스경보기, 가스차단장치)
소방(일반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분말확산 소화기)
주방(렌즈후드, 환풍기)
*동문님들께 최선을 다해 저렴하게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감비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